

情報社會를 대비한 情報專門家 養成을 위한 産學協同 및 教育課程 開發에 관한 연구*

남 태 우**

정 준 민***

목 차

- | | |
|-------------------------|--------------------------|
| 1. 서 론 | 4. 정보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
| 2. 문헌정보학 교육사와 교육의 최근동향 | 5. 결 론 |
| 3. 문헌정보학 및 관련학과 교육과정 분석 | |

1. 서 론

한국의 문헌정보학은 진정 학문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여 왔으며 또 다하고 있는가? 문헌정보학의 실증적 현장으로서의 도서관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정보에 대한 충분한 가치관을 계도하고 그 처리나 관리 문제들의 해결에 충분히 기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의 문헌정보학이 우리 사회 현실의 변화와 과학기술 수준 향상에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학문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가?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정보 수용에 대처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정보전문가를 양성, 배출하고 있는가?

오늘날 문헌정보학은 근본적으로 전환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본다. 때문에 이제는 그간의 우리 학문이 밟아온 길을 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방향 설정과 함께 그 미래를 예측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위기는 비단 우리 문헌정보학 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과학분야 전반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기존의 인문,

* 이 논문은 1993년도 교육부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접수일자: 1995. 5. 8

사회과학은 현실에 바탕을 두고 그 모순을 지양하는 학문으로 건설되지 못하고 외국의 학문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현실을 방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학문은 현실에 대한 적용에 있어 부적절성의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의 변혁 과정에 주어지는 학문의 임무를 등한시하여 왔다고도 볼 수 있다.

그간 우리 문헌정보학은 기술이나 기법 위주로 학문의 영역을 본의 아니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너무 오랫동안 외국의 지식을 수입하는 데만 급급해 이들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야기되는 새로운 과제들을 해결하는 이론을 스스로 창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우리학문의 이론과 실천, 교육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문헌정보학을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해 보아야 한다. 지금의 문헌정보학은 지나치게 실무지향의 측면에 비중을 두어왔던 것이 사실이며 상대적으로 철학적인 면, 정보정책, 정보에 대한 사회적 측면이나 정보문화에 관한 제반 문제 등은 논의의 대상에서 거의 제외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우리의 학문적 영역도 기존의 도서관적 사고와 기술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시대적 흐름과 과학발전에 따른 새로운 정보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과 아울러 문헌정보학의 연구영역을 그간의 교육과정과 현장 도입 및 정보 현장의 과학적 발전과 사회적 역할을 추이해 봄으로써 문헌정보학의 탄생 배경과 필연성을 명확히 하고 문헌정보학의 정의 및 학문의 성격을 규명하여 결국, 우리 문헌정보학의 철학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학문으로 정립되어야 할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문헌정보학 교육사와 교육의 최근동향

2.1 도서관학의 용어

도서관에 관한 연구를 학문으로서 취급하기 시작한 것은 독일이 최초이다. 독일어로 도서관학(Bibliothekswissenschaft)이라는 말은 Lexikon des Bibliothekswesens 에 의하면 1807년 슈레팅거(Martin Schrettinger)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다. 그는 'Versuch eines vollständigen Lehrbuchs der Bibliothekswissenschaft' 라는 저서명에서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 그 효시이다. 당시에 그는 이 용어의 의미를 협의로 제한해서

표현하였다. 즉 유용한 도서관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실제적 지식과 연구는 문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 이후 독일에서는 도서관학 내용을 둘러싸고 19세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었지만, 도서관학이라는 용어 자체도 순조롭게 정착되지는 못하였다.

미국에서는 듀이에 의해 최초로 1887년에 컬럼비아대학에 개설된 도서관학교도 School of Library Economy였지 Library Science는 아니었다. School of Library Science라고 명명하지 않고 보유한 점에 대해서 듀이는 “이 명칭을 결정할 때는 먼저 기술적 부문을 교수하는 것에 멈추고 일반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그 범위를 확장하고 도서관학 전반의 내용을 포함하기에 이르기 까지 그것을 예비로 남겨두는 것이 현책이라고 생각된다”(Library Notes 1887, March)고 기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과정도 이론보다 도서관 기술이 중심이 되었다. 이것은 도서관의 경영측면의 연구를 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 이후 도서관학교는 재정적 이유로 문을 닫고 1926년에 컬럼비아대학 도서관학부로서 재출발하였지만 명칭은 School of Library Service였다. 1928년에는 세계 최초의 도서관학의 박사과정이 카네기재단의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시카고대학에 개설되었지만, 미국에서 도서관학부의 경우 Library Science 라는 명칭을 오래 전부터 사용하였다.

영국에서도 대학의 도서관학부의 명칭으로서는 Librarianship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 단행본의 서명에 도서관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초창기의 예는 버틀러(P. Butler)의 도서관학개론(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1933)이 유명하다.

문(Eric Moon)에 의하면 어떤 학문의 성숙성은 용어가 어느 정도까지 표준화되어 있는가에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도서관학 측면에서 1964년의 시점에서 용어를 보면 도서관학은 유년기라고 할 수 있다(Moon 1964, 2750). 이러한 면은 초창기에 경영측면과 실용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이론과 철학적인 면을 도외시한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

2.2 교육사의 구분

도서관학의 학문적 성립연대를 1887년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은 괴팅겐대학과 컬럼비아대학에서의 강좌개설을 시작한 연도이기 때문이다. 그 밖의 이유로서는 1) 강좌개설, 학교설립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전문직교육의 필요성을 절

감한 것이며 2) 대학정규 학과목으로 인정되어 학생모집이 공고되고, 희망자를 입학시키고 과목담당 교수를 임명하고 수업시간을 정하여 학교교육의 형태를 형성시켰다는 점과 3) 각종의 학과목을 종합적으로 교수시켰다는 점(椎名六郎 1969, 9)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장치에 의해 전문직 양성의 길이 확립되었으며, 등기에 대학에서의 학과성립으로 학문의 성립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성립된 과학으로서의 학문의 사적 발전단계를 몇몇의 학자들이 제시한 이론을 중심으로 문헌정보학 교육사를 시기별 특성과 이론 및 철학을 통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선구적 시대 (1876년 이전의 시대)

일반적으로 미국의 도서관운동은 19세기 마지막 4반세기까지만 해도 부진한 편이었다. 그러나 1876년은 미국의 도서관문화사상 획기적인 연도로서 공공도서관운동을 놀라울 만큼 촉진시켜주는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난 해로서, 즉 미도서관협회의 창설을 필두로 해서 협회지의 도서관잡지의 창간, 또한 공공도서관에 관한 연방교육국의 특별보고서가 발표된 해이기도 하며, 듀이의 십진분류표의 발표 등이 그것들이다(Hessel 1955, 104). 이러한 연유로서 1876년 이전을 도서관사적 입장에서 선구적 기간으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척기 시대 (1876-1919년대)

이 시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도서관협회의 창설과 협회지의 도서관잡지의 발행 등이 이루어진 것을 필두로 하여 1887년에는 컬럼비아대학에 '도서관학교'(School of Library Economy)가 개설되었으며, 독일의 괴팅겐대학(Gottingen)대학에서도 도서관학강좌가 개설되어 도서관학교육이 '비정규적인 도제교육이나 직무교육의 형식에서 정규적인 학습방법'으로 변경된 시기이다. 또한 1915년에는 카네기재단에서 도서관학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여 개척기적 교육 시기에 활성화를 가속화한 것이다. 이 해에 ALA로 부터 독립된 '미도서관학교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Library Schools: 이하AALS로 약칭함)가 결성되어 대학에 소속된 도서관학교만을 인정하고 도서관에 병설된 사서직 양성학교의 인정은 불허하였다(Davis 1974). 이러한 조치는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사서직의 고양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생각된다.

또한 영국에서도 1919년에 최초의 도서관학교가 런던대학에 개설되어 사서직 양성

제도가 정상화되기 시작되었다(Wilson 1949, 44).

셋째, 전문직 논쟁 시기 (1919-1924연대)

사회가 다변화되어갈 수록 직업의 종수도 다양하며 따라서 전문직에 대한 사회의 요구도가 높아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서관학은 기술인가, 학문인가 라는 오랜동안의 논쟁만큼이나 전문직의 여부에 대해서 논쟁되어 온 것은 그 역사가 깊다.

전후 환경에서 ALA 위원회의 1인이었던 윌리엄슨(Charles Williamson)은 도서관 서비스 환경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ALA에 “도서관 직무교육의 미래”(Some Presentday aspect of Library Training)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ALA 교육훈련국의 총지휘하에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훈련활동과 기관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체를 제안하였다. 이 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으로서 1) 사서직을 위한 상향계획을 수립하고 2) 각 단계와 자격증을 발행하기 위해 훈련과 경험에 대한 최소한도의 기준을 결정하는 일 3) 학습의 적절한 기준을 분석하거나 인정하는 일(Williamson 1919, 120)등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전문직 논쟁 시기에 괄목할 만한 일은 이른바 ‘윌리엄슨 리포트’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1917년에 카네기재단은 도서관을 위한 자선의 결과를 연구시키기 위해 존슨(A. Johnson)을 채용하였다. 그의 보고서에서 도서관직원의 숙련을 증진시킬 필요성, 도서관학교를 위한 재정적 지원,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의 확충, 모델도서관의 한정된 숫자의 전략적 센터의 설립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Johnson 1917).

이러한 존슨의 서베이 결과로서 1919년에 카네기재단은 도서관직원 훈련을 위한 기존시설의 현장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이전에 경제학자였던 사서인 윌리엄슨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윌리엄슨에 의해 1921년에 보고된 ‘도서관업무의 훈련’(Training for Library Work)이라는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목적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이었다. 1) 도서관학교육을 고려한 정책결정에서 재단의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었으며, 2) 훈련된 직원을 수급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서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제시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Vann 1971, vii). 상기의 목표 중 후자의 것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의 결과를 보고한 보고서가 1923년에 발행된 ‘도서관 서비스의 훈련’(Training for Library Service)이다. 이 보고서에서 윌리엄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해 주고 있는데, 주요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1) 도서관교육에서 전문직업무와 사무직업무는 차이가 있으며, 도서관학교는 오직 전문직을 위해 훈련시켜야 한다.
- 2) 관련된 주제의 중요성에 관한 학교간의 협정이 미비하며 과정은 표준화되어야 한다.
- 3) 표준화된 입학시험이 필요하다.
- 4) 대다수의 교수들은 대학원생들을 교육시키기에는 자질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며, 자질을 좋은 대우로서 향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전임강사급 이상(적어도 4명이상)과 많은 교과서가 필요하며, 현장연구가 중요하다.
- 5) 학생모집은 저임금과 빈곤한 일자리로 방해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학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또한 기존학교들은 우수한 학생들을 유지하기 위해 장학금의 수혜폭을 넓혀야 한다.
- 6) 도서관학교는 권위, 고유기준, 우수한 학생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한 부서로 조직되어야 한다.
- 7) 도서관봉사는 고도의 전문화로 성장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2년제 과정이어야 하며, 1년간은 일반원칙을 2년제는 특수과정을 교육해야 한다.
- 8) 도서관직원은 계속적으로 전문적 성장 및 개선을 추구하여야 하며 통신교육의 방법도 개발하여야 한다.
- 9) 도서관업무에 맞는 기준이 없다. 또한 사서를 위한 자격제도도 개발되어야 하며, 도서관학교는 승인을 통해 표준화 되어야 한다.
- 10) 특수과정은 제한된 예산으로 소규모의 도서관 사서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개발되어야 한다(Nasri 1972, 422-424).

네째, 교육의 확립 시기 (1924-1936연대)

1924년에 설립된 ALA내의 도서관학 교육국(Board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이하 BEL로 약칭함)은 도서관학교를 인정하는 업무를 개시하게 되어 사실상 도서관학교교육의 강화로서 전환된다. 또한 카네기재단의 도서관학 10년프로그램(Carnegie Corporation's Ten Year program in Library Science)은 1926년부터 윌리엄슨의 권고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원하기 시작하여 BEL은 도서관학교의 최저기준(Minimum Standard for Library Science)을 1925년에 채택하여 4년제 대학 도서관학교, 3년제 대학 도서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교, 상급 대학원 도서관학교를 그 범주에 포함시켰다

(Churchwell 1975, 26-41). 전자의 두 학교는 입학을 위해 대학수준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후자의 경우는 대학수준과 마찬가지로 1년간의 전문직 프로그램의 졸업수준을 요구하였다.

이후 경제 대공황으로 인하여 도서관학교의 팽창이 지연되었으나 1936년 이후에는 이전의 두배 이상의 학교가 설립되었으며, 또한 1929년에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인정 학교가 개설되기도 하였으며, 1926년에는 시카고대학의 대학원과정에 도서관학 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학문의 황금시기를 열게 되었다(Davis 1976, 123).

다섯째, 창조적 재사고 시기(1936-1951연대)

1930년대 말기에는 과거 10여년동안의 대공황으로 경제적, 교육적 압박에 의해 도서관학교는 재적응되어 가는 기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1940년대에는 적어도 7가지의 새로운 연구가 도서관학 연구주제에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이다. 서베이, 관찰, 제안등으로 엮여진 이들 연구보고서들은 도서관학교육에 있어서 흥미를 자극시키기에 충분한 것들이다. (Carrol 1970, 59-143).

도서관학을 위한 교육문제가 2차대전이후 대학성장과 도서관의 급성장의 환경이 대두되면서 이 시기에 교육에 필요한 각 단계별 기준이 설정되기도 하였다.

여섯째, 조심스런 재조정 시기(1951-1960연대)

시대적 변이에 따라 그 시대에 적합한 교육적 기준도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그것도 2차대전으로 인한 경제적, 교육적 압박에서 해방된 새로운 교육기준이 필요하게 되어 1951년에 기준이 설정되어 이후의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대학교육 수준에서 대학원 교육수준으로 상향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원의 자질도 박사 학위수준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일리노이즈, 미시간, 시카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시작하여 교육적 자질을 스스로 상향조정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 뒤를 이어 컬럼비아, 버클리,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등의 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시작하여 학문적 깊이를 인식하게 만들었다(Davis 1976, 125).

1950년대 도서관학 교육의 뚜렷한 특징은 관심을 도서관 조직 밖으로 돌려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과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있다. 이 시기에 소위 사회인식론적 접근이 도서관과 사회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셰라(Shera)와 이간(Egan)에

의해 시도된 것들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현대사회의 수많은 복잡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그 영역 또한 너무 광범위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못하였으나 (Saracevic, 28-29) 도서관학의 원리적 체계화와 그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인지 시킨 결과로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일곱째, 도약적 확장 시기(1960-1970년대)

60년대 전반기의 10년간은 이제까지 겪지 못하였던 전문직의 도약시기라고 할 수 있다(Davis 1976, 126). 2차대전 이후 25년간은 통틀어서 도서관서비스의 발전은 끊임 없이 개선 발전되어 온 기간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래 전문직에 관한 관심주제가 적극적인 것이 되어 왔으나 도서관직원의 부족현상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대학에서의 재정, 신입생, 취업 및 학문의 발전적인 면에서 도서관학의 황금시기를 누리 기도 하였다.

상기와 같은 연유로서 1965년에 6천5백여명의 사서들의 지원하에 '고등교육법'이 발효되어 연방정부의 재정적지원에 힘입어 1961년에서 71년사이에 11개교(Summer 1972, 792)에서 박사과정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문직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적극적으로 변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과거 10여년간의 슬로전인 '변화의 필요성'(need for change)은 전문직에 대한 관심의 초점과 도서관학교의 교과과정 자체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Nasri 1972, 170-172). 혁신과 적합성은 정보학과 행동과학을 취급하는 새로운 과정을 통해서 추구되었으며, 더욱이 잠재적 이용자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어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필요하게 되었으며, 개발된 교수전략과 교육공학이 적용된 기간이다(Davis 1976, 128). 또한 정보의 유용한 커뮤니케이션과 배포를 위해서 미도서관학교협의회에서 도서관학교육자에게 1960년부터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을 발간하여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이 잡지의 발행은 도서관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학의 도약적 확장시기에 독특한 현상은 도큐멘테이션과 정보학의 새로운 주제가 많은 학교에서 교과과정에 반영되고 뿌리를 내내리기 시작한 점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추세로 미국 정보학회의 창립도 빛을 보게 되어 전통적 도서관학교에 정보학의 주제가 자리를 굳건히 잡게 되었다.

여덟째, 변화국면의 시기 I (1970-1979연대)

1980년에 윌리엄슨리포트(Williamson Report)에 필적되는 코난보고서(Conant Report)가 발행되었는데 이 보고서의 주내용은 1972년에 시작하여 75년에 완료된 것으로서 미국의 도서관정보학교육에 대한 당시의 상황을 조사보고한 것이다. 윌리엄슨리포트와 같이 여러가지 권고가 행하여 졌지만 교육현장에서의 반응은 비판적이었다(Badlick 1981, 93-133).

코난보고서는 도서관학교의 교수들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으로 이미 윌리엄슨리포트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의 반복 내용이라는 것 때문에 교육현장에서는 비교적 냉담하게 반응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에 특이한 사항은 출판업자들이 도서관학 교과서에 대한 활발한 출판활동이 두드러진다. 세라가 1972년에 저술한 'The Foundation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은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는 출판물이다. 또한 전문적교육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던 다른 주요한 저작중 현장실습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보코(H. Borko)가 1973년에 저술한 'Targets for Research in Library Education'이 있으며, 1970년에 도서관학교육에 대한 참신한 주제연구를 시도한 스톤(E. W. Stone)의 'Continuing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이 있는데 이 저작은 'Continuing Library Education Network and Exchange'에서 권고하여 설립된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에 관한 서베이적 성격의 보고서로서 그 가치가 높다.

아홉째, 변화국면의 시기 II (1980-현재)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서관학계에는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 나타나기 시작한 도큐멘테이션과 정보학에 대한 연구가 70년대를 거치면서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도서관학과에 컴퓨터와 수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대거 진출하였다. 그러나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과 그에 따른 컴퓨터 환경의 변화는 컴퓨터과학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실리적인 미국의 학생들은 도서관학 대신에 컴퓨터과학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컴퓨터를 응용한 도서관학의 학문적 발전은 그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결국, 우수한 도서관학교들이 하나 둘 폐교하는 실정에 이르렀으며 도서관학 교육과 방법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기에 이른다.

최근 생존한 도서관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교육은 오히려 과거의 전통적인 도서관교육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새로운 사회적 관심을 불

러 일으키고 있다. 결국, 변화된 기술 환경에 대해 이론과 서어비스로 대처함으로써 도서관학의 철학과 방법론을 찾았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과거의 도서관학이 보여준 기술 중심의 교육에서 컴퓨터과학과 접목을 통한 이론 중심의 교육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뉴저지 주립대학, 텍사스 주립대학 등 컴퓨터, 정보과학 및 정보산업과 관련된 학부과정을 병설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3 한국의 도서관학 교육사

8.15해방을 맞이한 우리나라의 도서관계는 당면한 많은 문제들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실무자의 양성이었다. 당시 국립도서관의 부관장이었던 박봉석의 노력으로 1946년 4월 1일 '조선도서관학교' (후에 '국립도서관학교'로 개칭함)라는 특수학교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사서를 양성하는 전문직 교육기관이 생겨났다. 이 학교는 1950년까지 운영되었는데 이 학교는 단기과정으로 당시의 필요한 사서를 속성으로 양성하여 배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으로 수강자격도 낮고 교육내용도 충실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중에 6.25사변으로 학교는 폐교되고 그 뒤 1956년까지는 도서관학교육의 불모지로 남게되었다. 1946년에서 부터 1950년까지를 '국립도서관학교 및 단기과정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서관학의 발아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1957년에 미국 피바디사범대학 교육사절단의 내한으로 동 4월에 연세대학교에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이 동시에 개설되고 별도로 부설된 한국도서관학당은 7년간의 우리나라 도서관학교육의 암흑기를 종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내지 전문학교 수준에 머물렀던 도서관교육을 대학수준으로 격상시켜 우리나라 도서관학교육의 질과 품격을 높이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또한 이화여대에서는 1955년 이봉순에 의해 3, 4학년 학생들에게 선택과목으로 12학점을 취득하도록 도서관학을 강의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대학에서 도서관학이 강의되어진 시초이다. 이것을 기초로 1959년에 도서관학과가 학부와 대학원에 동시에 개설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도 대학에 학과가 계속해서 개설되어 63년과 64년에 중앙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서 학과를 개설하여 활발한 학문연구의 기틀을 쌓게되었다. 또한 1965년에 일선사서들의 재교육과 자격증을 교부하기 위한 이원적인 목적하에 성균관

대학부설로 한국사서교육원이 개설되기도 하였다.

1970년대에는 대학원과정과 학부과정이 지속적으로 개설되어 대학에서의 학문의 중흥시기로 정착되어가는 과정에 있었다. 또한 1970년 1월에 도서관학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정식으로 학회가 결성되어 학문의 진작을 도모하는데 견인차역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문의 발전과 확대, 세분 그리고 통합의 과정을 거쳐오는 동안 도서관학이라는 명칭의 부적절함이 1971년 이재철 교수의 제기와 학계에서의 끊임없는 이론적 연구로 대학에서 최초로 1985년 전남대학교에서 학과명칭을 문헌정보학과로 변경함으로써 그 첫 결실을 맺었다.

또한 1974년에는 경북지역의 대구에 거주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도서관·정보학회’의 발족으로 지방에서도 학문연구의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4년에는 ‘한국정보관리학회’가 1986년에는 ‘서지학회’가 각각 창립되어 학문의 전문성 및 세분화에 따른 학회의 전문화도 이루어 지고 있다.

다음은 1970년대와 80년대의 문헌정보학 변화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에 있어서 특이한 현상은 대학에서의 학과의 대대적인 신설 현상이다 (표 2-1).

< 표 2-1 > 한국의 문헌정보학과 개설 현황 (1995년 현재)

과 정	기 관 명 (설치연도)		계
박 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1974)	연세대학교대학원 (1980)	6개교
	중앙대학교대학원 (1983)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1988)	
	부산대학교대학원 (1993)	상명여자대학교대학원 (1993)	
석 사	연세대학교대학원 (1957)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1959)	14개교
	성균관대학교대학원 (1971)	중앙대학교대학원 (1972)	
	경북대학교대학원 (1978)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1983)	
	청주대학교대학원 (1984)	상명여자대학교대학원 (1985)	
	계명대학교대학원 (1989)	부산대학교대학원 (1989)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1989)	전남대학교대학원 (1989)	
	충남대학교대학원 (1991)	전주대학교대학원 (1994)	

(계 속)

〈표 3-1〉 한국의 문헌정보학과 개설 현황 (1995년 현재)

과 정	기 관 명 (설치년도)		계		
학 부	연세대학교	(1957)	이화여자대학교	(1959)	32개교
	중앙대학교	(1963)	성균관대학교	(1964)	
	경북대학교	(1974)	숙명여자대학교	(1976)	
	효성여자대학교	(1977)	강남대학교	(1978)	
	부산여자대학	(1979)	청주대학교	(1979)	
	계명대학교	(1980)	덕성여자대학교	(1980)	
	동덕여자대학교	(1980)	명지대학교	(1980)	
	상명여자대학교	(1980)	전남대학교	(1980)	
	전북대학교	(1980)	충남대학교	(1980)	
	서울여자대학교	(1981)	한남대학교	(1981)	
	한성대학교	(1981)	대구대학교	(1982)	
	동의대학교	(1982)	경기대학교	(1983)	
	경성대학교	(1983)	전주대학교	(1983)	
	공주사범대학	(1983)	건국대학교	(1984)	
	부산대학교	(1984)	광주대학교	(1984)	
대진대학교	(1993)	중부대학교	(1995)		
전문대학	부산여자전문대학	(1970)	숭의여자전문대학	(1972)	7개교
	계명전문대학	(1974)	동래여자전문대학	(1979)	
	창원전문대학	(1980)	인천전문대학	(1981)	
	대림전문대학	(1994)			
기 타	성균관대학교	한국사서교육원(1965)			6개교
	계명대학교	사서교육원(1989)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1982)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1983)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1987)			
	국립중앙도서관	강습과정			

1980년대에 대대적으로 확장된 문헌정보학은 1984년에 전남대학교를 필두로 하여 학과 명칭을 도서관학에서 문헌정보학으로 바꾸면서 그 내용도 많은 변화를 보여왔다. 현재 모든 학과와 학회가 도서관학 대신에 문헌정보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써 한 때 야기되었던 도서관학의 학문명칭에 대한 시비는 일단락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학문명칭의 변화와 아울러 내부적으로 일어난 교육 변화운동은 아직 그 가닥을 잡지 못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한국의 문헌정보학을 미국의 문헌정보학 교육과 마찬가지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보아 아직도 대학원과정 중심의 교육을 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울러 학부, 대학원을 가리지 않고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전개하는가 하면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미약하기는 하지만 미래 정보사회의 정보산업에 그 초점을 맞추어 이미 정보산업의 하나로 탈바꿈한 도서관을 더 이상의 교육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도서관을 포함한 정보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 교육, 즉 정보사회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과학 및 사회과학으로서의 교육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문의 발전 배경과 그 환경에 근거해 볼 때 순수학문이나 기술교육이나는 논쟁은 별 의미가 없으며 양쪽을 어떻게 조화롭게 수용하여 대학의 학문으로서의 위치와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교육으로서의 문헌정보학을 발전시키느냐가 중요한 과제라 본다.

2.4 도서관교육의 이론과 실무교육

도서관학교육이 문헌정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서양성이라는 목적아래 이 방면의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교육제도 및 교육형태도 다양하게 전개 발전되어왔다. 이러한 형식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도서관학교육에 관한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리카르도 나시프(Ricardo Nassif)는 도서관교육에서 취급되고 있는 연구주제를 12가지로 압축하고 있는데, 이 중 5번째로 “이론과 실제의 이중면에서 본 도서관학의 교수법”(Nassif 1976)을 들고 있다. 이 주제는 듀이시대 때부터 현재까지 가장 활발한 논쟁거리로 남아 있으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가장 어려운 주제로 남아있다.

실무위주로 이루어지던 교육이 1923년 윌리엄스리포트 이후 이론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으나 이후 지나치게 인문주의적이고 심리학적으로 치중하여 실무와 너무나 동떨어지게 되자 다시 실무를 기준으로 삼는 교육이 행하여 지게 되었다. 이처럼 이론과 실무가 많은 갈등과 혼돈 속에서 아쉬운데로 균형을 이루면서 도서관교육은 발전되어 왔다.

도서관학의 교육자와 도서관현장의 실무자사이에는 이론과 실제에 대한 의견차는

상존된다. 교육자는 실무의 기술적 차원을 넘어서는 이론의 연구 및 교수에 강조를 하는 한편 실무자는 현장의 요구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실무기술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는 고분고분한 기술자를 원할 뿐인데 이 점에 대해서 화이트(H. S. White)는 “고용자가 대답 못하는 질문”(White 1983, 524)을 던지는 교육받은 사서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도서관학은 순수과학이 아니라 도서관 업무를 중심으로 발전된 응용학문이기 때문에 도서관학의 이론은 도서관 현장경험에서 추출될 수 밖에 없다. 훈련은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며, 반복되는 시도와 이행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이다(Deer 1980, 136).

실무는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익혀질 수 있으나 교육은 실제상황에 적용하고 발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원리와 체계 및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 도서관학은 학문의 성질상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이상적이므로 최근의 도서관학계에서는 전문직의 역할 및 이론과 실무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제고시키고 있는 실태이다.

2.4.1 이론교육

도서관학이론의 발전과 전개 그리고 구축에 공헌한 초기의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포스켓(D. J. Foskett), 버틀러(P. Butler), 화이트(H. S. White) 등은 도서관학 개념의 정립을 위해 이론과 원리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도서관활동을 위한 특수한 원리와 개념의 선명한 묘사와 유별화 및 성분화를 요청한 것이다. 윌슨(L. R. Wilson)은 도서관학의 전문성은 도서관학 철학의 전개에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머허지(A. Mukherjee)는 도서관학 철학의 전개는 도서관직 본질의 복잡성이나 불분명한 문제에 명확한 해석을 내려줄 것이고 실무적인 문제의 해결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세라는 사서가 도서관학 철학이론을 단일화시킬 수 있는 책이라고 하였으며, 문포드(Q. L. Munford)에 의하면 도서관학의 전문적 발달의 3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창조적 사고를 위한 자극, 지도자 배출을 위한 책임성, 사서직의 철학을 강조하고 있다(Christ 1972, 15-19). 상기와 같은 초창기의 이론들은 한마디로 듀이시대 때 부터 이론 보다는 실무를 강조한 학문성의 결여로 발생된 후에로서 그이론의 바탕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단들로 한결같이 도서관학의 철학이나 이론의 전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서관학교육에 있어서 이론 및 원리가 발달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을 문헌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정리된다. 1) 도서관학 관계 문헌이 절대 부

족하다. 2) 도서관학 용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 3) 전문직 요건의 하나인 협회의 활동이 아주 미약하다. 4) 도서관 행정상 의사결정이 과학적인 기초 위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이고 경험적으로 이루어져 비과학적이다. 5) 사서들의 태도가 학구적이지 못하고 실제적이고 기술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 교과과정의 구성이나 도서관학 교수법이 충실하지 못하다 등으로 분석된다.

2.4.2 실무교육

이론과 실무는 사상가와 행동가의 대비와 같다. 사상은 자체적으로 완벽한 것이라 할지라도 행동가, 실무자가 현실에 이론과 사상을 적용할 때 생명력이 있고 효과적인 것이 된다. 플로닉(A. Plotnik)에 의하면 “...가장 좋은 판단, 최상의 정책은 실무사서에 의해 만들어 진다. 그는 봉사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도서관계 관련자 보다 더욱 현실적이며, 윤리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Gennaro 1983, 1319)라고 하였다. 아무리 최신의 이론이라고 할지라도 실무에 적용하기 어렵고 불편하면 그 이론의 생명은 단말적인 것이 되고 만다. 물론 이론은 실무의 중요성을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를 더욱 향상시키고 창조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의 가치에 대한 시험은 바로 실무자에 의해 얼마나 잘 적용될 수 있느냐에 좌우된다.

마틴(Lowell A. Martin)에 의하면 “전문직을 육성하려면 도서관교육은 이론적이고도 심층적으로 배우게 하는 한편 그 이론의 적용에 있어서 기술과 판단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였다(Leigh 1954, 43). 즉 이론과 실무의 균등한 개발이 문제시 된다. 이론과 실무의 균형을 위해 양자간의 접근방안으로 모색되는 것은 실무교육의 다양한 실시로 보안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리스(Reece)의 실무교육 학습방법의 이론과 범주를 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는 실무교육 학습방법의 범주를 6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교실밖 수업, 실험실 방법, 프로젝트법, 관찰법, 개별 연구문제, 현장실습” 등이다(Martin 1967, 208). 그러나 대체적으로 도서관교육프로그램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는 실무교육방법으로는 1) 도서관학과 부설도서관, 2) 현장실습, 3) 입학이전의 실무경험, 4) 도서관 견학 등의 4가지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4.2.1 학과 부설도서관

이는 teaching library; training library; library centered-library education 등으로 호칭되기도 한다. 실험실습과 같은 학습형태로 특히 기술봉사분야의 학습에 유용한 시스템

이다. 학생들은 분류 및 목록실습을 통해 그 분야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사서들은 계속교육이 될 수 있는 최신의 기술봉사를 체득하여 이론과 실무사이의 격차를 없애는 새로운 기관이다(Gorman 1981, 670). 이러한 부설도서관의 특징에 대해서 고먼(Michael Gorma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다.

- 1) 그러한 도서관들은 가장 최신적이고 광범위한 경험을 지닌 사서를 고용한다.
- 2) 도서관에는 독서나 교실수업을 보충 조명시키는 경험을 얻도록 충분한 공간을 마련한다.
- 3) 이 도서관들은 가장 진보적이며, 오늘과 내일의 사서를 위한 실험실이 되어야 한다.
- 4) 도서관학과 교수진은 부설도서관의 요구에 따라 실무자와 교수의 혼합이며, 사서들은 그들의 권한내에서 학생들에게 교수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 5) 학생들은 운영되는 도서관의 모든 측면 및 수준을 예견함으로써 실제 도서관의 상황에 눈뜨게 된다.
- 6) 이 도서관에서는 모든 사서와 학생들이 도서관봉사라는 목적을 위한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실제적이면서도 근원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

이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조직의 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원리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학습방법으로는 행동연구법과 참여관찰법을 들 수 있다(New 1978, 96-96). 행동연구법은 학생들의 결정 및 행동을 교정, 지도, 평가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문제를 연구하는 과정이다. 이는 행동(실무)안에 연구(이론)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교수를 계획할 때 발전적 단계적인 과정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참여관찰법은 과정을 분석, 실험하는 논리적인 행동과정이다. 관찰은 문제를 재형성시키고 더욱 예리하게 분석할 수 있는 관찰장면에서 데이터수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학교의 교육계획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제한때문에 도서관학교가 도서관에 자리잡는 것은 그다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도서관학교가 공공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에 설치된 국가에서는 학교가 민첩하게 실무적인 것을 교육체제에 전수시킬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들 자체 권한에 의해 훈련으로 개발시킬 수도 있다.

부설도서관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프랑스의 Bibliotheque Publique de Massy이다. 이곳은 공공도서관이며 또한 국립도서관학교의 부설도서관이다. 여기에서는 도서관학교에서 이론으로 학습된 내용을 실제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시설은 하나의 완전한 샘플도서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된 완

전한 도서관이다.

2.4.2.2 현장실습

일반적으로 학습은 행함으로서 배우는 것이다. 실지 현장에서 체험적으로 이론을 적용시킴으로서 산 지식의 체계와 자신을 얻을 수 있다. 또 교실에서 수업받는 것보다 동료, 사서, 도서관 이용자와의 만남에서 더욱 깊은 이해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Stavelly 1972, 8). 프랑스의 가장 유명한 부설도서관인 Bibliotheque Publique de Massy처럼 도서관학과 부설도서관 방법도 행해지고 있지만, 학생들이 실무경험을 얻는 주된 방법은 학생들을 적당한 도서관에 배치시켜 조절된 환경 속에서 과정을 마치도록 하는 현장실습이다. 실습은 최대한의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곳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는 의사의 인턴과정과 비슷하고 조직적인 일정에 의해 움직여진다. 이상적으로는 과정 중에 학생들이 도서관의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실무지식을 얻어야 하며 대규모 도서관의 여러 부서에서 실습을 거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실습 장소를 제공하는 도서관과 실습을 내보내는 도서관학교의 상당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또 실습과정 중 도서관 경영원리와 관련시켜 기술봉사의 운영과 기능을 알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도서관 자료를 직접 경험하게 해야한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Michigan대학 도서관에서는 새로운 실습 프로그램이 짜여지고 있다. 넓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로테이션 방법을 쓰던 것을, 도서관에서 훈련부담을 줄이고 실습생에게 더욱 깊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단일 부서에 배정을 하는 것이다. 실습에 있어서 학습은 이론과 실무 사이의 관계를 깨닫게 하며,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알 수 있고, 학교에서 배운대로 행해져야 할 것과 현장에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것 사이의 격차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Witucke는 현장 실습에 관한 기사에서 10가지 문제점을 제시한다(Witucke 1981, 81).

1. 학업 도중 언제 실습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2. 몇주간 계속 실습하는 것이 연구 과제가 1학기내내 계속될 수 있는 것이며, 실습이 학과목에 따라 행하는 것보다 이익이 있는가?
3. 현지감독관(사서)은 어떤 종류의 훈련방법을 지녀야 하는가?
4. 학생들이 실습 경험으로부터 최대한 효과를 얻도록 교수는 어떤 방법으로 교수해야 하는가?

- ⑤ 도서관학 교육과정에서 얼마 정도의 학점과 시간수가 실습에 할당 되어야 하는가?
- ⑥ 어떤 학생에게 더 실습이 필요한가?
- ⑦ 실습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실습지의 특성은 무엇인가?
- ⑧ 실습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감독관의 특성은 무엇인가?
- ⑨ 교과목 내에서 실습의 역할은 무엇인가?
- ⑩ 도서관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도서관 실습과 그들이 배운 이론과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의 해결방법에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도서관의 결정이 중요함을 인식시키고 있다.

미국에서 초기 도서관학 교육이 실시되었을 때는 실습을 크게 중요시 했었다. 기술 훈련을 중시한 교육으로부터 대학원 차원으로 옮겨간 전문적 교육이 되자, 이러한 추세는 변화하여 교과과정 내에 실습을 포함시키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차츰 실습이 부활되고 있어서 실습은 필수적은 아니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이용가능한 선택적인 실습이 되고 있다.

2.4.2.3 입학 이전의 실무경험

우리나라에서는 단기 강습과정의 수강자격으로나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만, 미국에서는 대학원을 입학할 때 자격요건으로 실무경험자를 우대하는 경향이 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학습이전 경험의 유익성은 그 교육적 효과가 크다. 실무경험 기간은 학생들에게 의사결정의 시기이기도 하며, 그들이 졸업후 직업으로서 사서직에 적합한가를 확실하게 해주는 시기이다. 학생들은 직접적인 도서관 지식을 도서관 학교에서 주어지는 강의에 관련시켜 이용할 수 있다. 실제 도서관 업무에 대한 통찰, 도서관 관계자 및 이용자와의 접촉이 고유한 경험이다. 실무경험이 있는 학생은 경험없이 곧바로 도서관학교에 입학한 학생보다 훨씬 확신에 차있고 도서관학교도 도서관 배경이 있는 학생으로부터 실무적인 면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실제없는 이론은 공허에 불과하다. 특히 도서관학교교육에 있어서는 타교육에서 보다 그것들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

2.4.2.4 도서관견학

견학은 이론적으로 연구한 것의 실제적인 적용상황을 관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

의깊게 선택, 계획된 일정을 세워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이다. 여기서 첫째 문제는 도서관을 잘 선택하는 것이다. 또 이 방문은 도서관측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 사서들에게 꽤 많은 인내심이 요구된다. 또한 효과적인 것이 되려면 목적을 명확히 정하고 산만한 활동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도서관 운영 및 봉사의 실태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방문은 주의깊게 계획되고 효과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견학도중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학생들에게 견학 이전에 세심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며, 이후에 질의나 토의 시간을 준비하여 관찰의 결과를 정리시키고 표현하게 한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중요한 현상을 충분히 토의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실습교육이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론과 실무 사이의 격차가 좁혀질 수 있는 것이다.

3. 문헌정보학 및 관련학과 교육과정 분석

본 연구의 목표는 문헌정보학의 위상정립과 그에 따른 새로운 주제영역 설정 및 교과(교육)과정의 모형을 제안하는데 있다. 특히, 여러 학문과의 연계를 무시할 수 없는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특성에 따라 기존의 문헌정보학의 교과과정 뿐 아니라 학문적으로 인접한 몇몇 학과의 교과과정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문헌정보학 연구의 폐쇄성을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수집가능한 23개 문헌정보학과 및 37개 관련학과의 교과과정〈표 3-1〉을 분석하였다.

3.1 교과과정의 분석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은 23개 대학에서 779개의 교과목이 설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사한 혹은 동의어로 이뤄진 교과목을 하나의 교과목으로 처리한 결과 96개의 교과목 〈표 3-2〉으로 정리되었다. 관련학과의 교과목은 〈표 3-3〉에서 보여 주듯이 문헌정보학과 상관관계가 있는 교과목만을 정리하여 보았다.

본 절에서 분석한 자료는 문헌정보학의 교과과정을 과목명을 대상으로 의미론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학과의 교과목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표 3-1〉 분석 대상이 된 문헌정보학 및 관련학과 개설 대학 (1994년말 현재)

학 과	설 치 대 학	
문헌정보학과	경기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성대학교, 계명대학교, 광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상명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중앙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성대학교, 효성여자대학교	23개
경영정보학과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충북대학교	3개
계산통계학과	서울대학교	1개
고고미술사학과	서울대학교	1개
국사학과	서울대학교	1개
국어국문학과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2개
동양사학과	서울대학교	1개
사학과	전남대학교	1개
사회학과	고려대학교	1개
서양사학과	서울대학교	1개
신문방송학과	강원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한양대학교	8개
신문학과	서울대학교	1개
심리학과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2개
인류학과	서울대학교	1개
정보공학과	고려대학교	1개
정보관리학과	국민대학교, 동국대학교, 원광대학교	3개
정보처리학과	경산대학교	1개
정보통신공학과	순천향대학교, 충북대학교	2개
중어중문학과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2개
한국사학과	고려대학교	1개
한문학과	고려대학교	1개
철학과	고려대학교	1개
출판광고학과	광주대학교	1개

〈표 3-2〉 교과목명 (문헌정보학과)

1. 고서정리	33. 문헌통정	65. 재정 및 인사관리
2. 과학기술문헌정보	34. 분류목록연습	66. 전산학개론
3. 관종별도서관	35. 분류법	67. 전자매체
4. 교육공학자료	36. 비도서자료	68. 정보시스템
5. 금석자료	37. 사무자료관리	69. 정보검색
6. 기록보존학	38. 사서실습	70. 정보관리
7. 뉴미디어론	39. 사회과학문헌서지	71. 정보문헌선독
8. 데이터베이스	40. 사회심리학	72. 정보사회론
9. 도서 및 인쇄사	41. 사회학개론	73. 정보서비스론
10. 도서관경영	42. 산업정보관리	74. 정보수학
11. 도서관봉사의 특수문제	43. 색인초록	75. 정보자료론
12. 도서관연구법	44. 서지학	76. 정보처리
13. 도서관통계학	45. 아동청소년자료	77. 정보학개론
14. 도서관과 사회	46. 연속간행물	78. 정보간행물
15. 도서관봉사론	47. 영남학자료	79. 조직행위론
16. 도서관사	48. 영미자료	80. 주제별서지
17. 도서관전산화	49. 영서강독	81. 중국 및 일본학 자료
18. 도서관정보네트워크	50. 의학서지	82. 중국서지
19. 도서관정책론	51. 의학용어학	83. 중국전적
20. 도서관조사통계론	52. 이용자교육론	84. 참고정보원
21. 독서교육론	53. 인간관계론	85. 출판과 저작권
22. 동양전적해제	54. 인문과학문헌정보서지	86. 출판커뮤니케이션
23. 마이크로컴퓨터응용	55. 일본자료	87. 출판학개론
24. 목록조직론	56. 일서강독	88. 커뮤니케이션론
25. 문서관리	57. 자동화목록법	89. 타자실습
26. 문서자료	58. 자동화정보시스템	90. 특수자료
27. 문헌분류법	59. 자료선택	91. 한국서지
28. 문헌선택	60. 자료조직	92. 한국학자료
29. 문헌자료조사법	61. 자연과학서지	93. 한서강독
30. 문헌정보학연구법	62. 장서개발	94. 한중서지
31. 문헌정보학일본자료	63. 장서관리	95. 행정산업정보관리
32. 문헌정보학개론	64. 장서구성	96. 행정학

〈표 3-3〉 교과목명 (관련학과)

1. DBMS	38. 문화변동론	75. 정보시스템분석 및 설계
2. MIS개론	39. 미디어체계와 사회체계	76. 정보시스템운영과 정책
3. 경영계량분석	40. 박물관학	77. 정보이론
4. 경영자료처리론	41. 사무자동화론	78. 정보자원관리
5. 경영정보	42. 사무자동화정보시스템	79. 정보조사 방법론
6. 경영정보검색론	43. 사용자시스템/정보센타	80. 정보처리론
7. 경영정보시스템론	44. 사회조사방법론	81. 정보통계학
8. 경영정책	45. 상담심리학	82. 정보통신론
9. 경영조사방법론	46. 새언론매체론	83. 정보학개론
10. 고고학연구법	47. 시스템분석 및 설계	84. 조사연구법 및 실습
11. 광고매체론	48. 언론과 대중문화	85. 중국문자학
12. 광통신공학	49. 영상분석론	86. 지식사회학
13. 금석서지학	50. 운영체제론	87. 지식의 문제
14. 네트워크개론	51. 의사결정과정론	88. 지역사회론
15. 뉴미디어론	52. 의사결정지원시스템	89. 출판론
16. 뉴미디어와 광고론	53. 인간과 문화	90. 출판문화론
17. 대인커뮤니케이션론	54. 인간커뮤니케이션	91. 출판잡지론
18. 대중문화론	55. 인공지능	92. 출판제작
19. 데이터구조론	56. 인공지능및전문가시스템	93. 커뮤니케이션과 기술
20. 데이터구조 및 알고리즘	57. 인류문화와 환경	94. 커뮤니케이션과 문화
21.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58. 인사관리	95. 커뮤니케이션과 사회
22. 데이터베이스론	59. 인쇄학	96. 커뮤니케이션과 종교
23. 데이터베이스시스템	60. 인지과정 및 실험	97. 커뮤니케이션론
24. 데이터통신	61. 인지과학	98. 커뮤니케이션발달사
25. 데이터통신 및 설계	62. 자료구조론	99. 커뮤니케이션사상사
26. 데이터통신시스템	63. 자료 및 파일구조	100. 커뮤니케이션심리학
27. 동양사적해제	64. 잡지출판론	101. 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
28. 마이크로컴퓨터응용	65. 저작권법	102. 커뮤니케이션철학
29. 마이크로프로세서	66. 전문가시스템	103. 커뮤니케이션학사
30. 매스커뮤니케이션	67. 전자출판론	104. 컴퓨터네트워크
31. 매스컴과 대중문화	68. 정보검색	105. 통계학
32. 매스컴발달사	69. 정보공학개론	106. 통신계통이론
33. 매스컴 사회학	70. 정보관리원론	107. 통신측정
34. 매체교육론	71. 정보기술론	108. 한국사적해제
35. 매체발달사	72. 정보사회론	109. 한국의 사회와 문화
36. 매체비평	73. 정보사회와 뉴미디어	110. 한자의 이해
37. 메시지행위론	74. 정보사회와 매스미디어	111. 확률과 통계

문헌정보학 교과목의 분포를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교과목을 이해하고 그들 교과목을 몇개의 부류로 나누어 관련학과의 교과목을 유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에서 나타난 문헌정보학 및 관련학과 교과목의 특징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정보학의 교과과정은 크게 ① 정보의 문화론적 이해, ② 정보의 사회학적 접근, ③ 정보의 경영론적 해석, ④ 정보의 구조론적 분석 및 ⑤ 정보 기술과 정보 환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보의 문화론적 이해는 도서 및 도서관사가 해당된다 할 수 있으며 정보의 사회학적 접근은 정보사회론, 커뮤니케이션론, 출판 관련 교과목을 들 수 있다. 또한, 정보경영, 도서관 센터경영론 등이 정보의 경영론적 해석이라 할 수 있으며 시스템 분석 및 전통적 의미의 도서관 실무교육이 정보의 구조론적 분석에 해당된다. 그와 아울러 정보사회로의 진입과 컴퓨터, 통신 기술의 발달은 정보기술과 정보환경에 대한 새로운 교과목을 제시하고 있는 바 컴퓨터 및 정책관련 교과목을 들 수 있겠다.

3.2 기존 학문체제 모형분석

3.2.1 모형분석을 위한 선행연구

정필모는 ‘도서관학과 교과과정의 모형화를 위한 연구’(1982)에서 도서관학 교과과정을 그 기초과정을 위시해서 다음과 같이 도서관의 실무활동과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 1) 입문과정 : 도서관학개론, 도서관정보학개론, 정보학개론, 서지학개론
- 2) 역사적연구 : 도서관사, 도서 및 인쇄사, 도서관학사
- 3) 이론적연구 : 커뮤니케이션론, 졸업논문, 도서관학연구법
- 4) 수서업무에 관한연구 : 자료선택론
- 5) 자료정리업무에 관한 연구 : 분류법, 목록법, 자료조직법, 자료조직연습, 사서실습, 고서정리법, 정보처리법, 비도서자료조직론, 정부간행물처리법, 서지구조론, 색인초록법, 프로그래밍, 컴퓨터개론
- 6) 참고업무에 관한연구 : 독서지도론, 문헌이용법, 참고봉사론, 참고문헌론, 주제별서지, 정부간행물, 인문학문헌론, 사회과학문헌론, 인문사회과학문헌론, 과학기

술문헌론, 도서관자료, 정기간행물, 정보검색론, 한국서지, 동양전적, 시청각자료, 운영론, 중국서지

- 7) 대출업무에 관한연구 : 정보관리론
- 8) 운영관리연구 : 도서관운영론, 대학도서관 운영론, 대학 및 학교도서관 운영론, 학교도서관 운영론, 특수도서관운영론, 도서관자동화론
- 9) 기타 (외국어등) : 영서강독, 한서강독, 일서강독, 도서관실무영어, 타자실습, 도서관과 사회, 정보학특강, 도서관학특강, 공문서관리, 도서관조사통계론, 교재연구, 도서관교육론, 의학도서관운영론, Medical Terminology, 고문서관리, Information Survey Research, 시스템분석론, 일본자료특강, 비교도서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제시한 교과과정 모형(1989)에서는 다음과 같이 영역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교과목을 제시하였다.

- 1) 입문분야(이론) : 도서관정보학개론, 도서관문화사, 서지학개론, 커뮤니케이션론, 이용자연구, 출판유통론, 국가/국제정보정책, 도서 및 인쇄사
- 2) 기술업무분야 : 장서구성론, 자료조직론, 고급분류, 고급목록, 고서정리법, 정부간행물,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색인초록법, 컴퓨터정보처리법, 정보검색론, 문서관리, 고문서학
- 3) 참고봉사/서지분야 : 이용자봉사, 참고자료, 특수매체론, 특수이용자봉사, 아동청소년자료, 독서지도, 이용자교육, 사회과학서지, 인문과학서지, 과학기술서지, 온라인탐색, 한국고전서지, 중국서지
- 4) 도서관경영 : 도서관경영론, 대학도서관, 특수/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문서관, 박물관, 보존/복제, 도서관건축론, 도서관조사통계론, 도서관자동화
- 5) 정보시스템 : 정보수학, 시스템분석, 사무자동화 컴퓨터프로그래밍, DBMS (DB관리론), 인공지능, 정보이론, 전산입문, 정보기술
- 6) 어학분야 : 한서강독, 일서강독, 영서강독
- 7) 기타 : 도서관학연구법, 타자, 사서실습, 졸업논문

한편, 일본에서 1977년에 나온 도서관 정보학 교육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공과목

- 1) 기초부문 : 문헌정보학의 이론을 다룬다. (도서관, 정보학개론, 도서관사, 사회와 도서관, 학술의 발달 보급과 도서관)
- 2) Media이용부문 : 각종 기록정보의 특징, 이용법 및 정보수급을 다룬다. (정보Media론, 참고조사자료론, 참고조사연습, 정보요구조사)
- 3) 정보조직부문 : 정보이용을 위한 유통기술 및 그 매체조직처리법. (정보조직론, 분류 목록법, 정보검색, 정보유통기술론)
- 4) 정보시스템부문 : 정보수요에 대응하는 전 Process를 시스템으로 파악. (정보시스템론, 정보시스템관리, 건축, 도서관기계화론)

2. 관련과목

철학, 논리학, 언어학, 교육학, 사회학, 경영학, 수학, 자연과학통론, 생리학, 심리학, 정보공학등

UNESCO에서 마련한 개발도상국을 위한 도서관학 교과과정은 도서관원, 도큐멘탈리스트, 정보전문가 등 여러 형태의 전문가를 교육, 양성하는데 공동기반이 되는 기초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지침에서는 도서관학에서 다루어야 할 교과내용을 7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이 포함해야 할 이론과 실무를 제시하고 있다.

1.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 기초코스

- 1) 이론면 : 정보전달과정, 도서관 정보학의 특성
- 2) 실무면 : 번역

2. 이용자 연구

- 1) 이용자 행동과 이용자요구 (일반적환경)
- 2) 이용자행동과 이용자요구 (전문연구, 특정환경)
- 3) 이용자조사방법론

3. 정보원 (도큐멘테이션, 시청각, computer-based and institutional)

- 1) 일반적인 조사
- 2) 레퍼런스, 서지정보원
- 3) 과학기술, 사회과학, 인문과학 (정보원 전문연구)
- 4) 실습 : 메뉴얼탐색, 컴퓨터데이터에 기초한 탐색

4. 정보데이터의 축적과 검색
 - 1) 목록, 분류, 색인의 이론
 - 2) 컴퓨터 이용법
 - 3) 시스템설계: 비교연구 및 평가
 - 4) 실습 : 목록 분류작업, 파셋분류의 작성, 시소러스 작성, 초록작업, 기초컴퓨터 프로그램
5. 조직
 - 1) 경영원리와 기술
 - 2) 시스템환경과 목표
 - 3) 각종 도서관 (국립, 대학, 공공, 전문, 학교)과 정보센터
 - 4) 시스템조작
 - 5) 복제
 - 6) 기계화, 자동화
 - 7) 정량적 수법
6. 특정연구와 학위논문 : 연구수법
7. 선택
 - 1) 도서관 정보업무의 사적연구
 - 2) 국제적 비교도서관학
 - 3) 역사적 서지
 - 4) 인쇄 및 도서
 - 5) 출판업 및 서적업
 - 6) 문서관리와 기록물관리
 - 7) 고문서학
 - 8) 도서관 교육
 -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상급

사라세빅(T. Saracevic)은 가장 포괄적인 정보학교육의 교과과정을 나타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크게 다음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 1) 기본개념영역 : 이 영역은 도서관학의 기초와 정보학개론을 포함한다

- 2) 이론 및 방법론 영역 : 이 영역은 연구조사개론, 수량적 방법, 분류, 정보검색이론, 언어와 정보학, 복합시스템 내에서의 문제해결 등을 포함한다.
- 3) 정보시스템영역 : 이 영역은 정보검색시스템, 전문정보센터와 봉사, 특수도서관, 정보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 4) 응용영역 : 이 영역은 자동화, 경영과 설계, 연구조사, 교육, 정책개발 등을 포함한다.

3.2.2 모형분석

앞 장에서 제시한 선행연구와 본 자료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문헌 정보학의 모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보이론 영역

- 1 정보의 문화론적 이해 - 정보를 문화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역사적 전통 위에서 정보행위를 이해하고자 하는 부분을 말한다.
- 2 정보의 사회학적 접근 - 정보현상과 정보처리를 단순한 기술적 영역에서 해석하지 않고 인간의 사회학적 행위로 처리하고자 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2) 정보실무 영역

- 3 정보의 경영론적 해석 - 정보행위를 경영원리에 입각하여 해석하는 부분이 모두 여기에 속하며 보다 적극적인 개념에서의 정보경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4 정보의 구조론적 분석 - 실제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며 과거 도서관적 사고에서 진일보한 정보처리 전반에 관한 연구가 여기에 속한다.
- 5 정보 기술과 정보 환경 - 정보와 관련한 총체적 해석으로 주로 정보와 관련된 기술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각종 매체 및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포함한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모형은 현행 교과목의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이로부터 나타나는 의미를 분석한 것에 불과하며 본 논문이 미래지향적인 사고에 입각

하여 학제간 연구와 타 학문의 연구성향을 토대로 분류하여 본 것이다. 실질적으로 일부 교과목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도리어 협의의 도서관이라는 개념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 예로 대부분의 대학이 개설하고 있는 정보검색에 대한 실제 교과내용을 보면 도서관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자동화 시스템과 서지검색에 국한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내용 또한 검색의 원론과 이론적 부분 보다는 구현된 시스템의 사용방법이나 그 구조를 표현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도서관경영(일부 학과에서는 정보경영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음)도 마찬가지로 정보라는 원론적 개념에 대한 경영론이 아닌 경영학의 예로 한다면 구체적인 업종이나 규모의 기업체 관리시스템(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에 대한 예시로 되어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기업체의 근간인 관리론(인사관리, 재무관리 등)의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 또한 특이한 일이다. 그러므로 과거식으로 현재의 교과과정을 분석하여 특징을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우리의 교과과정과 그 교과목의 제목이 나타내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관련학과의 교과목을 동시에 분석하여 그 총체적 해석을 하여 봄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보며 그렇게 분석하여 위의 모형을 얻었다. 그러므로 위 모형에서 나타난 결과와 현실은 좀 다를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다음 장에서는 본 장에서 제시한 모형을 근거로 보다 구체적인 교과과정을 설계해 보고 문헌정보학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동시적 교육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교육과정 및 현장의 연계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4. 정보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문헌정보학교육이 시작된 이래 문헌정보학의 학문 분류상 위치를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속성을 고루 지닌 종합과학으로 규정 지우고 있다. 문헌정보학이 인문과학의 속성을 포함하고 사회과학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아울러 구체적인 실현방법이 자연과학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면 먼저 총체적 인식태도를 취해야 한다.

총체적인 인식태도란 일정한 문제를 전체와의 연관속에서 접근하고 파악하는 태도를 말하며 이는 연구에 있어서도 통합과학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구체적인 문제

를 탐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각종의 통합과학의 연구대상들이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사회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개별과학도 그 자신의 내부에서 전체 체계와의 연관하에서 전개되고 체계화되어야 한다. 여러 개별과학은 각각 현실의 사회구조에 입각한 입체적 상호연관을 이루면서 정립되어 전체로서 체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것은 곧 모든 통합과학의 개별과학은 그와 관련된 인접학문의 이론적 성과들과 항상 의사소통을 하면서 체계화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날 인문, 사회과학의 이론구성과 연구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요구되는 인접학문과의 의사소통적, 종합적 방법 (interdisciplinary attitude)은 이러한 요청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은 다른 학문보다 비교적 종합학문적인 특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로 짧은 기간내에 외국이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자 이에 대한 반성과 자각으로 사회과학의 현실 적합성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문헌정보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제 교육적인 면에서 도서관이나 정보자료실 등의 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료의 기술적 처리 부분에만 거의 치우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정보문화 전반에 걸친 비전 제시라든가 정보의 대중화 및 정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제반상황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제시 등 사회현실과 보다 밀착된 연구부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연구는 자연과학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따라서 시공을 달리하는 서구사회의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배타적인 사회과학 이론과 연구방법을 그대로 우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하는데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문헌정보학은 그 학문적 속성이 분명히 사회과학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실제로는 이러한 부분들은 연구에서 취급되어지는 정도가 미비하며 주로 생산력에 비견될 수 있는 기술, 기법의 개발 적용 등에 거의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문헌정보학이 응용과학적 분야로 귀착되어가는 단적인 징표가 되고 있음을 주목할 일이다. 물론 어떤 한 분야에서 그 구성원 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특히 한 분야에 지나치게 매달리다 보면 정상적인 발전을 꾀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종합과학으로 자처되는 문헌정보학의 경우는 현재 상태로는 학문의 제 기능도 사회적 인식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며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도 없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현재의 문헌정보학이 현실 적합성을 온전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연구의 방법이

나 분석의 과정, 인접 사회과학분야의 지식습득 등의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연구의 소재 개발을 통해 극복되어야 할 우선적 과제이다.

세번째로 학문이 강한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이론에 있어 과학성이 있어야 한다. 과학성이란 객관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문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이를 모두 포괄하는 통합과학이든 그것은 절대불변의 법칙이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름아닌 설득력 내지 신뢰성이다. 우리의 학문 이론이 취해야 할 태도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을 정립하거나 여러 이론들 중 가장 신뢰성이 높은 이론을 선택하는 것 뿐이다. 학문이 해당 사회현실에 제기되는 문제를 성실하게 접근하며 설명해 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자기변신이며 학문 내적인 자기 변신의 노력만이 우리 문헌정보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였거나 전공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우리 학문이 이론적 학문이라기 보다는 실무지향의 학문에 가깝다는 것을 익히 접하였을 터이다. 물론 어떤 학문이라도 관심을 가지는 대상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들은 원래의 대상에 반영되어 영향을 미칠 때 다시 말하면 원래의 대상들에 유용성을 가질 때 비로소 제 기능을 다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문헌정보학은 이론과 실천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실무지향으로 편중되어 왔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실무 또한 학문 발전의 계기와 동기를 부여하는 현장의 피이드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우물안식 실무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 나머지 우리의 실정에 맞는 이론의 개발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진정 우리의 학문으로 자리잡는데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합당한 이론을 기반으로 한 실천이 유용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는 올바른 실천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헌정보학은 학문적 정의에 나타나 있는 연구영역에서 최소한의 부분만을 왜소화시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앞서 정의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도서관학이 '도서관 현상'에 관련된 학문이라는 정의에서 보면 '도서관 현상'은 사회의 여타 현상들과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을 터인데 이러한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에 반영 시키지 못했거나 반영시켰더라도 그 정도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보학자를 "정보의 내용 자체보다는 정보의 수집, 처리, 검색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지나치게 기능면만 강조하는 왜소한 정의로 여겨진다. 이는 정보학의 인문, 사회과학적인 속성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며 사회구조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올바른 정보문화 제시자로서의 역할은 제외되어 있다. 물론 정보학의 성립기반이 급증하는 과학정보의 처리에 관심을 가졌을 지언정 학문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부각되는 관련분야의 흡수 포용에는 거의 무관심하였다는 사실은 상기하여 볼 일이다. 인접한 학문간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소재에 대해 자기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학문의 발전을 위해 의의가 있는 일이다.

사회는 항상 변화하고 발전한다. 따라서 학문이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구조의 변화에 적응하고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변신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의 학문체계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물론 우리 문헌정보학분야도 외형적으로는 변화되었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타학문 변화에 비교해 볼 때 지극히 초보적인 움직임에 불과할 뿐이다.

현재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과정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유사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수년전의 것과 별 차이가 없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시대적 상황이 달라진 지금까지 자기변신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수 있다. 문헌정보학이 도입된 이래 꾸준히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이에 병행하여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충실히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적실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교과과정이 사실은 기계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이해력에, 관례적인 것보다는 원리의 기술에 중점을 두었어야 함에도 또한 학문분야의 관련성과 끊임없는 직업성장의 증진을 강조해야 함에도 이를 도외시해 왔음은 자명한 일이다.

결국 현재의 문헌정보학은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적실성 있는 변신을 위하여 현행 교과과정을 대폭 개편하여 앞으로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 양성해야 할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는 곧 학문의 사회봉사라는 학문적 소임과 무관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여타 학문과 보조를 같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대적 요청이기 때문이다. 현실성있게 대처하지 못한 제도교육은 이수한 세대들에게 과학, 이론은 오직 전문가의 일로써 간주되고 학교교육에서 습득한 인식들은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은 채 간직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학문이 얼마나 대중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문의 위상을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적 모순을 바로 잡으며 학문의 영역을 확대 심화시켜 사회기여의 폭을 넓히고 동시에 과학적 이론의 수립을 통한 실천과의 통합이라는 철학적 물음에 응답할 수 있는 연구활동이 새롭게 고찰되어야 한다. 그간의 문헌정보학 연구내용은 실용주의적 기능주의 철학의

영향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도서관업무의 능률향상 내지는 정보의 수집, 처리 검색 효율성의 극대화 등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물론 초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구의 이론을 우리나라의 후학들에게 소개한 선배 학자들의 학문적 노력은 이 흐름 속에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연구내용의 확대를 위해서 학문의 발전과 분화로 인해 창출되는 과생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테면 요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정보공개' 분야와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정보정책' 분야에도 우리의 연구력을 투자해 볼만 하며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정보사회학', '정보환경론', '정보문화론', '도서관 철학', '정보문제', '사회과학적 정보유통문제' 등 여러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원리와 이론의 정립, 그 실천을 통한 '학제간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위한 공동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헌정보학이 유달리 관련학문이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 진다. 연구의 영역을 확대, 심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학문은 주류가 되지 못하고 주변학문으로 밖에는 취급되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 문헌정보학이 주로 미국의 도서관학, 정보학을 그대로 답습해 왔음은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하리라 생각되어진다. 이와같은 현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학문의 질적, 양적 팽창과 더불어 현실 진단의 부족과 사회와 학문의 발전에 적실성 있게 변화하지 못한다 그 원인이 있다. 이를 위해 과학적이면서도 경험적 태도가 요구된다. 이는 문헌정보학이 단순히 현실이나 상황, 현상에 맹목적으로 매몰되어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현실 사회간의 현상 또는 그들 상호간의 연관을 대상으로 과학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문헌정보학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은 결코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이론과 학설은 항상 현실의 경험적 사실 속에서 시험되지 않으면 안되고 그 이론적 성과들은 끊임없는 검증과 수정의 무한한 반복과정을 통하여 과학성을 획득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본 장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도서관학의 정의를 도서관학, 정보학, 문헌정보학으로의 발전과정을 통하여 미래 정보사회의 학문으로서의 문헌정보학의 위상을 새로이 정의해 보고 그에 걸맞는 산학협동 차원에서의 교육과정 및 교과과정을 제시하여 본다.

4.1 문헌정보학 정의의 역사적 고찰

4.1.1 도서관학과 정보학

도서관계에서는 정보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이전에 도큐멘테이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1892년 P. Otlet과 H. La Fontaine에 의하여 주창된 도큐멘테이션으로부터 정보학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Shannon과 Weaver의 정보학 이론과 Nobert Wiener의 사이버네틱스의 연구성과가 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는 미국의 도큐멘테이션 학회가 정보학회로 개명하면서 본격적인 정보학 시대가 열린 것이다. 도서관학이 정보학과 융합될 수 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도서관학은 도서관의 실천운동을 지도하는 방법론이지, 도서관 자체를 교수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도서관학의 교육은 도서관 현실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한 실천운동으로 여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로 인하여 과목이 점차 증가하고, 주로 대학을 포함한 양성기관이 증가하고, 수업연한도 규정되고 도서관의 개념이 사회에 인식되어 사회적 통념이 된 것이다. 즉 도서관학은 그 발생초기부터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에 필요한 여러가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고 교육하였기 때문에 최근까지 근 100년 동안 도서관학 또는 도서관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지칭되어 왔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종래의 도서관학은 그 시설이나 건물로서의 도서관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문헌의 인식, 수집, 정리, 운용에 관한 문제 등을 포함하여 여러종의 학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명칭 자체도 비논리적이며 그 본질과 체계도 문제가 되어 오랜동안 도서관학이 학문이나, 지식이나 하는 논란과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도서관학은 끝내 객관적인 타당성과 학문적인 체계를 수립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도서관학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소리로 기술중심의 사상비판과 도서관학의 원리와 목적의 결핍, 사회에 기여할 역할 및 학문으로서의 가치, 교과목을 통합시킬 철학의 부재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왕성한 시대에 비로소 처음으로 도서관학의 명목을 세운 이론이 랑가나단에 의한 도서관의 5대법칙과 버틀러에 의한 도서관학의 입문에 의하여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 때가 제2차 세계대전의 위기가 다가올 1920년부터 1930년대의 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컴퓨터의 출현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이른바 정보학(Information Science)이 급진적으로 발전하였고, 특히 정보학은 인간의 지능활동을 최대한으로 효율화하는 새로운 과학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야의 학문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 충격을 주어 대혁신을 가져오게 하였다. 따라서 종래의 도서관학에서도 이러한 정보학의 기본적인 이론과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학문으로 체계화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도서관학과 정보학이 보완적으로 통합하여 현재의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으로 탄생을 하게된 데에는 몇가지 사회적인 배경이 원인이 되었다. 먼저 정보전달 매체의 변화에 있어서 무선통신기술을 매스커뮤니케이션에 이용한 라디오의 정기방송은 1920년에 시작되어 1920년 후반에 걸쳐 유럽,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으로 급속히 넓혀져 갔다. TV 방송은 1941년에 일본에서는 1953년에 매스미디어의 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러한 전파미디어는 그동안의 인쇄매체에 의한 정보의 독점을 깬 것이다. 이와같은 매스미디어의 보급으로 인하여 사회가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항상 변화하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최근의 소식과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여 갈 수가 없었다. 따라서 개인을 대신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일반대중에게 전달하여 주는 전문적인 중개조직 또는 중개인이 생기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의 정보서비스 기관이며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정보전문가라 한다. 이는 정보전달매체의 변화에 따른 사서의 업무적인 확장인 것이다. 이 시기에는 근대의 여러 도서관들이 각기 다른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여러 유형의 현대적인 도서관들이 탄생하였다. 이들 다양한 도서관은 여전히 도서관이 그 소장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나 매스미디어의 보급으로 소장자료의 영역을 비책자자료로 확대하였다. 급격한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뉴미디어'의 출현을 가져왔다. 특히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보제공 기관에서의 뉴미디어를 활용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비하고자 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뉴미디어가 출현을 하게 된 배경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컴퓨터의 기술과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들의 결합을 들 수 있다. 1945년에서 1980년까지의 시간에 따라 컴퓨터의 설계사상, 미국에서의 중요한 도서관 관계의 프로젝트, 도서관의 컴퓨터화 서지적인 데이터베이스의 변천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와 같은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점을 알 수가 있다. 그 원인의 하나로는 정보기록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가 국가적, 세계적,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재산으로서 이용이 됨에 따라 종래의 '도서'라는 차원에서 '정보'라는 차원으로 옮겨져서 도서관의 서비스도 정보서비스로 옮겨질 필요가 생겼다. 또한 종래의 도서관 활동과 도큐멘테이션 활동을 통하여 개발되어 왔던 기술들이 전자기술을 기초로 하는 신기술이 발달하여 한층 강화됨과 동시에 이제까지 불가능 하였던 도서

관정보서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정보의 축적, 검색, 제공이라는 서비스 기능은 도서관정보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1970년대에 걸쳐서 컴퓨터를 비롯한 신기술은 도서관학과 정보학이 각각 포함하는 기술적인 측면을 융합, 발전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가장 전형적인 예가 기계가독형목록(MARC)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이다. 그리고 컴퓨터가 제3세대에서 제4세대로 옮겨짐에 따라 통신망의 구축이 가능하게 되어 목록을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 상호간의 네트워크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OCLC, RLIN, WLN이라는 서지공공사업(Bibliographic Utility)을 매개로 지역과 지방, 전국적인 차원의 도서관 네트워크를 합쳐서 수백개나 구축을 하게 된다. 이것은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당연한 귀결이지만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한 도서관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도서관이라고 부른다면 도서관 네트워크야 말로 그 명칭에 어울리게 '도서관 네트워크'를 도서관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사상적인 변혁이 이루어졌으며 도서관 기술과 정보기술과의 제휴와 융합이 이루어졌다.

한편 현대의 도서관 및 정보관리를 위한 기관도 정보자료의 폭발적인 증가와 이용자의 급증 및 전문화로 인하여 종래의 수작업에 의한 업무처리방법을 탈피하여 도서관의 모든 기능을 컴퓨터에 의존하여 자동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도서관학의 과목 중 정보학적인 분야의 과목도 상당히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보통신 수요의 다양화와 고도화를 들 수 있다. 즉 전문정보나 일상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가 세분화되고 있고 정보처리에 있어서도 이러한 다기능을 하는 미디어를 이용자가 원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들은 미디어의 수용대상을 계층화하여 미디어도 세분화가 되고 전문화가 되어 시장의 문화가 발생하였다. 또한 시스템의 측면에 있어서도 최근의 전송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정보의 전달방식이 변화되었다. 또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가 다양화되어 모든 형태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정보는 이용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이용자 주도형으로 변화하였다. 또 정보를 복사하고 기록하는 능력도 향상이 됨과 동시에 다양한 장소에서 장기간 혹은 단기간의 정보를 용이하게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뉴미디어의 시대에도 책의 출판은 여전히 늘고 있으며 여전히 도서관자료의 중심은 도서자료이다. 하지만 이제 도서관도 책이 없는 도서관이 출현하여 단말기 하나만 있으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이며 하이퍼미디어를 응용하여 화면, 문자, 소리 등을 동시에 보여주고 들려주는 움직이는 전자책의 실용화 단계가 되고 있

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사회에 보다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도서관인들은 그 역할을 적절하게 알아갈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에 의하여 학문의 토대가 되는 교육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4.1.2 문헌정보학의 정의

문헌정보학을 올바르게 연구하려면 먼저 연구의 내용이 아닌, 그 범주를 물어서 우리 학문의 정의를 정확히 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에 대한 어떤 공인된 정의 같은 것이 아직 없으며 학자들마다 자신의 정의를 내려서 발표하므로 그 많은 정의 중에서 최선의 것을 골라 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임의로 선택한 여러 시대와 지역의 대표적인 정의를 열거하고자 한다.

도서관학과 정보학을 통합한 새로운 하나의 개념으로서 문헌정보학을 정의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짐으로 여기에서는 도서관학과 정보학의 개념을 따로 열거하고 문헌정보학이 도출되어 나타나게 된 배경과 그 정의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도서관학이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이냐에 대한 이론이 많지 않고 도서관학의 정의에 변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진다.

동양에 있어서 도서관이란 명칭은 영미계의 library 를 번역한 말이며 도서관학이란 명칭도 본래 library science를 번역한 말이다. 동양에서는 역대로 도서관적인 시설이나 기관이 많이 있었지만 이들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통칭이 없었다. 그러나 19세기 말기부터 서양의 문화가 동양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영어의 library가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library를 도서관이라고 번역한 데는 무리가 없으나 library science를 도서관학이라고 번역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DDC초판이 1876년 발행될 당시에 있어 도서관학은 Library Economy로 표현하였으며 이 시기에 Library Economy는 주로 축적되어지는 도서나 도큐먼트에 대한 보존이나 장래의 이용을 위하여 이들에 대한 물리적 처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도서에 대한 주제 분석과 분류조차도 자료를 서가상에 외형적으로 배가하는 입장에서만 보아왔다. 19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Library Economy가 Library Science로 그 명칭이 바뀌어 오늘날과 같은 도서관학이란 학문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물론 Library Economy가 Library Science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여 효율적인 연구가 도서관업무

에 응용되어진 것은 아니다.

ALA의 도서관용어집에 의하면 “도서관학이란 인쇄 또는 서사된 기록류의 인식, 수집, 조직, 이용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학을 “문헌을 인식하고 수집, 정의, 운용하는 지식과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정필모는 도서관학을 “도서관의 목표, 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론, 원칙, 방법, 조직 및 기술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지식 및 기술’을 학문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한 이론적 모순이며 도서관학이 체계적인 과학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도서관학은 도서관의 실무활동에서 요구되는 수많은 종류의 학문을 종합하여 도서관학이란 명칭이 주어졌기 때문에 도서관학이 학문 또는 과학으로서의 원리나 목적이 일관하는 체계를 수립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원래부터 그 본질과 체계가 문제가 되어 오랫동안 도서관학이 학문이나 기술이나 지식이나 하는 논의와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론의 빈곤과 방법론의 비과학성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세기에 접어들면서 과학기술문명의 발달로 종래에 거의 볼 수 없었던 발명과 개발이 일어나고 이 분야에 있어서의 정보요구가 급진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도큐멘테이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이용자의 정보요구 증가는 정보의 대량생산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이들 대량의 정보가운데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 입수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었던 것이다.

도큐멘테이션이란 용어의 최초 사용은 1905년 국제경제학회의에서 오톨렛이 전통적인 도서관학과 서지학을 구분하는 용어로서 “document를 수집, 처리, 축적, 검색 및 배포에 관한 활동”이란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도서관의 기능은 자기교육, 정보과학, 오락 등에 대한 자료제공이란 종합적인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기능에만 중점을 두었으며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자료의 조직과 배포보다는 교육적, 문화적 자료에 오히려 중점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도서관은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의 정보요구에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다 바람직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이 도큐멘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오톨렛은 도큐멘테이션을 “인간활동의 전분야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문헌을 수집, 분류, 배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브래드포드는 “인간의 지적활동에 대한

모든 종류의 기록자료를 수집, 분류하여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행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물론 브래드포드도 오텔렛의 견해에 거의 일치하지만 특히 브래드포드는 도큐멘테이션은 학(science)이 아니고 기술(art)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보코(H. Borko)는 "도큐멘테이션은 정보학의 응용부분 가운데 하나이다. 도큐멘테이션은 기록된 문헌정보를 수집, 축적, 검색 및 배포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도큐멘테이션은 레포트나 정기간행물문헌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였다. 셰라(Shera)는 여러 전문가들의 집단내에서나 집단간에 일차자료에 대한 간접적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지조직의 일부분으로 도큐멘테이션을 정의하고 이로 인하여 전문가들은 가능한 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데이터를 제공받게 된다고 하였다.

Aslib에서는 1945년 기관지 *Journal of Documentation*의 출판을 위해 도큐멘테이션에 대한 정의를 내린바, "전문화된 지식을 기록하고 조직하고 배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1951년 미국 특수도서관협회(Special Libraries Association)에서는 도큐멘테이션을 "도큐먼트의 생산, 배포, 이용 등으로 구성되어진 기술"이라고 정의하면서 이 정의에는 기록방법이나 이용방법에 관계없이 어떤 형태의 기록정보라도 도큐먼트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정의에 있어 도큐먼트는 레포트나 필름, 사진, 지도, 편지카드, 음악테이프, oscillogram 등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제도큐멘테이션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for Documentation)에서는 도큐멘테이션을 "인간생활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도큐먼트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배포하는 것"으로 정의함과 아울러, *Encyclopedia Britannica*에서는 "정보접근을 위하여 전통적인 분류, 목록의 방법 뿐만 아니라 색인이거나 초록 및 서지형태의 도구를 이용하여 서지통정과 조직을 행하는 행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정의상에서와 같이 도큐멘테이션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며 주장하는 사람마다 그 정의상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큐멘테이션이란 새로운 지식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도큐먼트를 조직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도큐먼트의 수집, 분류, 축적, 출판, 배포 등이 포함된다고 하겠다.

1960년대에 들어서 문헌정보학의 관심은 학술정보의 축적과 검색기술을 비롯한 정보관리기술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문헌'에서 '정보' 중심으로 이행되어갔다. 따라서 미국에 있어서는 도큐멘테이션이 바로 정보학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정보학"이란 용어는 1961년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개최된 과학정보전문가 양성에

관한 회의에서 최초로 정의가 내려짐으로써 점차 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GIT 회의에서 각 대표들은 documentation과 documental이라는 용어는 사용상에 있어서 광범위하고 무수한 의미상의 해석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일치점을 보았었다. 1962년 GIT회의 이후 정보학은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기에 이르렀고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정보학이 무엇이며 정보학이 학(science)인지 아닌지 확실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단지 종래의 documentation이란 용어가 점차 information science로 그 명칭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고 하겠다. GIT는 정보학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정보학이란 정보의 속성과 행태, 정보의 유통을 지배하는 요인 및 최적의 접근성과 이용성을 가지도록 정보를 가공처리하는 수단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는 정보의 발생과 배포, 수집, 조직, 축적, 검색, 해석 및 이용을 포함한다. 이 정보학은 수학, 논리학, 언어학, 심리학, 컴퓨터공학, 운영연구, 필사예술, 커뮤니케이션, 도서관학, 경영학 및 몇몇 다른 학문분야에 관련 혹은 이와같은 학문분야에서 파생된 학문이다.”

이 정의상에 나타난 주요 핵심어는 정보의 속성과 행태이다. 그러나 무엇이 정보의 속성이고 행태인지를 명확히 언급하기란 어렵다. 정보의 행태란 특정 외부상황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일반적 유형으로서 일정 시점에 있어서 정보의 정적 상태 및 일정 기간에 있어서의 정보의 동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학에 있어서 정보의 행태는 계량서지학적 측면에서 그 연구가 얼마든지 수행되어질 수 있다. 또 정보의 유통을 지배하는 요인이란 정보의 발생에서부터 커뮤니케이션 혹은 정보전달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달 및 재생산되는 전과정 가운데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뜻하며 최적의 접근성과 이용성이란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되 또한 필요한 정보를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라 하겠다.

문헌정보학은 영미계의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를 번역한 학문명칭이며 종래의 도서관학과 현대의 정보학이 결합된 학문이므로 이 둘을 합리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문헌정보학의 정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어로 된 문헌을 읽을 때

Library and Information이라는 용어를 종종 찾아볼 수 있으며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라는 용어도 자주 출현한다. 그러나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일반적인 사전류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Association of American Library School」이 「Association for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으로 학회명을 개칭했던 때에 JEL, 23(4), 1983에 “명칭 안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짧은 문장안에서 개칭이유를 들고 있다. 여기에는 1) 거대하게 급속도로 발전을 계속하는 중대한 기술적 진보가 정보전문직 전반에 확산되어 현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따라서 이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우리들의 목표와 목적으로서 우리들의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할 책임에서 학회명을 개칭하며, 3) 또한 학술잡지로서 학회지명도 도서관 정보학 교육지(JELIC)에 필연적으로 개명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상의 예는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라는 용어가 출현하게 된 환경을 설명해 주는 예이다. 그 중에서 주목할 점은 이 용어의 출현이 정보화 사회의 발전과 신기술의 영향으로 필연적으로 그 목표와 목적을 고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도서관학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지 정보학 교육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종전의 도서관의 서비스와 운영이 정보요구에 적절한 도서관의 서비스와 그것에 상응하는 경영관리면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게 되어 그 때문에 개혁이 행해져 온 것이다. 따라서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라는 용어의 출현은 도서관학이 항상 그 시대에 적합한 도서관 본연의 서비스 업무를 추구해 왔던 결과로 생겨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4.2 정보사회를 대비한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개발

4.2.1 산학협동의 필요성

전통적 의미의 문헌정보학은 실무교육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이 기술의 발달을 쫓아오지 못함으로써 실무교육으로서의 방향성 및 현실성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다. 정보센터나 정보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닌 최첨단의 과학기술이며 문헌정보학이 제시하는 방법론은 이미 시대적으로 그 효용성을 상실한지 오래된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문헌정보학 교육은 기술적 현실감을 찾아야 할 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적극적 유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대학원 과정만을 개설하여 정보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을 집약하고 현장에 투입하는데 상당히 탄력적이며 고급인력을 현장에 직접 투입함으로써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융통성을 갖는다. 최소한의 문헌정보학 기술교육으로 특정한 주제배경을 바탕으로 주제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미국의 현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헌정보학에 대한 이해 보다는 자신의 학문적 배경을 중심으로 문헌정보학 기술을 응용한다는 약점을 가질 수 있다.

즉, 미국의 교육현장은 비록 그것이 대학원 과정일지라도 그 내용은 기술학교의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현장의 실무경험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현장의 기술과 수준을 그대로 보여줄 뿐 아니라 현장에서 현재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술과 방법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대학원 박사과정을 중심으로 현장의 그같은 상황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론과 환경을 제시해 주기도 하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도서관학 교육의 목적을 보면 석사과정은 학문적 배경을 가진 일반 학생을 교육시켜 도서관 현장에 투입시키는 일이며 박사과정은 현장의 사서를 학교로 불러들여 새로운 이론과 환경에 대한 재교육이라 할 수 있다.

4.2.2 새로운 교육과정의 제안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문헌정보학이란 특정영역에 대한 구조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그 영역을 해석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즉, 특정 주제영역의 학문적 깊이를 그 영역에 종사하는 학자와 그들의 학문활동을 기본으로 해석하고 추론하는 것이 문헌정보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제배경이 그것을 이해하는데 다소 도움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주제전문가로서 활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소기의 성과도 얻기가 어렵다. 주제전문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주제영역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발전이 요구될 뿐 아니라 역설적으로 특정 주제영역에 대해 주관을 가져서는 안되는 원칙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였다 하여도 정보처리를 위해서는 몇 단계의 기술인력이 필요하며 이들 모두 공통의 문헌정보학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고급인력을 낭비하거나 직업으로서의 구매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또한 미국의 문헌정보학 교육은 말 그대로 산학협동 차원에서의 현장 기술교육이며

사서들의 재교육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미국의 교육제도와 교과과정이 산학협동 차원에서 실익을 얻고 있다고는 하나 학문과 이론에 대한 뿌리가 없어 학문의 발전과 방향이 현장의 기술 수준과 유행에 따라 변질되어 가는 모순을 안고 있으며 결국, 현장이 전통적 의미의 도서관이 아닌 정보산업의 일부로 바뀌자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을 상실하고 만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배경을 통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서구식의 주제전문가 양성 보다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정보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및 그에 상응한 교과과정이 있어야 한다. 학부과정을 통하여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기반을 습득하고 나아가 현장에 투입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물론 지금과 같은 교과과정이 아니라 정보체제의 어떠한 변화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이론적, 대상영역의 구조론적 해석이 가능하고 정보체제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이론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지금의 4년제 학부제를 통하여 기초 소양을 익히고 1년여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현실적 감각을 익힐 수 있다. 대학원 석사과정은 현장에서의 부족한 점을 메우는 재교육과정이나 보다 심화된 학문연구를 위한 중간과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지금의 전문학교 과정은 폐지하거나 사회교육적 개념에서 정보환경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즉, 국내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사회교육사로서 독서실 또는 그와 유사한 환경을 취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을 다루도록 한다. 이 경우 지금의 기술교육 위주에서 사회사업 차원에서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본다.

박사학위 과정은 석사과정을 통하여 익힌 정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변모하는 정보기술 환경과 정보사회 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

끝으로 현장실습은 지금과 같은 교과목의 하나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산학협동의 차원에서 1년이상의 인턴ship을 씌으로써 과거 전문학교 출신이 담당한 부분을 실습으로 대체하며 보다 고급화된 인력을 사서로 채용함으로써 인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교와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하리라 본다.

본 제안을 표로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1〉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제안

과 정	학문적 내용 및 특성
전문학교 과정	폐지 또는 사회교육사로서의 역할변화
학부과정	문헌정보학이론, 정보이론, 정보분석 등
실습과정(인터십) - 1년간의 정규과정	정보기술에 대한 심화교육
석사과정	정보사회론, 정보경영론, 정보정책론 등
박사과정	보다 심화된 정보이론 및 기술연구

〈표 4-2〉 새로운 교과과정의 설계

영 역		교 과 목	
정 보 이 론 영 역	1. 정보의 문화적 이해	금석자료 독서교육 문화변동론 인간과 문화	정보문화사 문자론 언어론
	2. 정보의 사회학적 접근	저작권법 정보사회론 출판론 커뮤니케이션론	정보윤리 정보정책론 인지공학 용어학
정 보 실 무 영 역	3. 정보의 경영론적 해석	과학기술문헌정보 사회과학문헌정보 인사관리	장서관리 재물관리 정보경영론
	4. 정보의 구조론적 분석	고서정리 데이터베이스론 문서관리	분류론 정보검색 정보조직론
정 보 실 무 영 역	5. 정보 기술과 정보 환경	뉴미디어론 전산학개론 통계학	정보수학 정보통신론 인공지능론

4.2.3 교과과정의 설계

앞장에서 제시한 문헌정보학의 역사 및 정보사회에서의 새로운 해석 및 교육과정의 설계에 맞추어 그에 합당한 교과과정을 제안해 본다. 여기서 제안하는 교과과정은 산학협동의 인턴과정을 전제로 하며 석사과정 이상의 경우 현행의 교과과정이 기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문헌정보학 학부를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본 제안은 앞장에서 제시한 모형을 바탕으로 하며 일부 관련학과의 교과목을 도입함으로써 기술 중심의 교과목에서 탈피한 이론(주제영역의 구조적 해석)에 바탕을 둔다 <표 4-2>.

5. 결 론

어떠한 학(science)이든지 그 학이 하나의 학으로 간주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사라세빅(Tefko Saracevic)과 리이즈(Alan M. Rees)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① 주어진 현상에 있어서 공통된 관심이 있을 것
- ② 확고한 자격을 갖고 업무수행을 하는 사람이 그 분야에 많이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기관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 것
- ③ 연구를 행하기 위한 유용한 기법, 도구, 방법론 및 이론적 토대가 존재할 것
- ④ 그 분야에 관심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정식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
- ⑤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간에 공식,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있을 것
- ⑥ 전문학회나 협회 및 학술지의 출판 등이 존재할 것

이상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볼때 문헌정보학은 이들 가운데 전부를 갖추지는 않았을지 모르나 대부분은 만족시켜 주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문헌정보학은 하나의 학문으로서 충분히 연구될 만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브릴루인(L.Brillouin)은 “과학이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의 의미가 명확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되며 이들 단어들은 기존어휘에서 선택할 수 있고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단어의 애매성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의가 내려져야 한다”고 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문헌정보학은 그 정의적인 측면이나 명칭상의 문제에 있어 통일이 되어있지 않다. 그러므로 문헌정보학을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학문으로 하기 위해 명확한 학문상의 정의가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이 제시한 교육과정 및 교과과정을 통하여 전통적 개념에서의 문헌정보학과 서구에 뿌리를 둔 학문의 한국적 응용 및 관련학문의 연구성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모하는 정보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보았다. 그러나 아직 학문적 정의가 정확히 내려지지 않은 현실에서 최대한의 공약수를 찾아 제시해 본 것에 불과하므로 학문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질 경우 이와같은 노력이 다시 한번 있어야 하리라 본다.

참고문헌

- 구본영. 1988. "도서관학 교육과정 구성의 원칙." 도서관학 15:45-72.
- 권은경. 1991. "정보전문직을 위한 도서관-정보학교육." 도서관학 21, 191-223.
- 김세익. 1970. "세계적 추세에서 본 한국도서관학의 일측면에 대한 고찰." 도서관학 1, 103-132.
- 김용원. 1990. "일본의 도서관.정보학교육." 정보관리학회지 7(1):78-93.
- 김정소. 1977. "圖書館學의 體系化에 관한 研究." 도서관학논집 4, 91-109.
- 김중환. 1970. "도서관 관계 전문직과 관계학문의 재규정." 도서관학 1, 133-147.
- 김태승. 김선영. 1988. "정보학의 개념과 교육의 기본방향." 정보관리학회지 5(2):127-44.
- 나성실. 1979. "한국도서관학 연구의 경향에 관한 연구:1945-74." 송의논총 제4집.
- 남태우. 1988. "도서관학에서의 비교연구방법론." 정보관리학회지 5(2): 3-22.
- 남태우. 1986. "문헌정보학 교육방법론의 고찰." 전남대학교 논문집 (사회과학편) 31: 139-165.
- 리재철. 1990. "文獻情報學의 學名에 대한 考察." 정보관리학회지 7(2), 3-34.
- 문경민. 1993.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엄영애. 1989. "한국도서관학 교육의 전망." 도서관학 16, 34-51.
- 엄영애. 1989. "도서관학 교육의 전망." 도서관학 16:33-54.
- 유재욱. 1990. "미국의 정보학교육." 정보관리학회지 7(1):94-107.
- 윤선영. 1987. 정보학 교육방향에 관한 이론적 연구. (청주대학교,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이순재. 1990. "한국도서관학-정보학 연구의 확대를 위한 소고." 도서관문화 31(6), 281-292.
- 이흥구. 1970. "도서관학의 문제점:학문으로서의 도서관학." 도협월보 11(7).
- 임종순. 1967. "도서관학의 정의에 대해서." 도서관학회지 3, 79-85.
- 정동열. 1993. "연구방법론 분석에 의한 문헌정보학 이론 개발에 관한 연구." In: 제5

- 차 3개학회 공동학술대회, 1993. 6. 24-25. (낙산, 호텔낙산비치, 미간행초록지)
- 정필모, 1969. "도서관학의 새로운 체계; 문화창달의 경제적방법론의 전개." 중앙대논문집 14, 65-90.
- 정필모, 1971. "도서관명칭의 변천에 대하여." 도서관학 2.
- 정필모, 1972. "학문명칭으로서의 '문헌과학'에 대한 재고." 도협월보 13(9).
- 정필모, 1973. "정보과학의 속성과 문헌정보학." 도서관학보 2, 35-63.
- 정필모, 1974. "문헌정보학의 형성논리." 한국비블리오 2.
- 정필모, 1982. "도서관학 교과과정의 모형화를 위한 연구."
- 최성진, 1973. "圖書館學과 情報學." 도서관학보 2, 177-204.
- 최성진, 1993. "韓國文獻情報學에 대해서." 창사이춘회교수정년기념논총, 81-112.
- 최성진, "정보학교육의 개혁방안 연구." 도서관학 16:111-76:1989.
- 최정혜, 1988. 도서관학 문헌의 계량서지학적 연구. (숙명여대, 미간행석사학위논문)
- 한복희, 1982. "우리나라 도서관학계 연구동향의 수량적 고찰(1959-1981)." 인문과학연구소논문집 9(2), 567-588.
- 한상완, 1989. "한국의 정보서비스 교육프로그램 발전연구." 전북문헌정보 3, 9-28.
- 현영아, 1989. "서지학교육의 회고와 전망." 도서관학 16:55-70.
- Achleitner, Herbert K. & Grove, Robert, 1988. "Managing in an information-Rich Environment: Applying Information Transfer Theory to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 *Special Libraries*, 92-100.
- Adkinson, Burton W. 1961. "Scientific information and the U.S. federal government." *Revue de la Documentation* 28, 133-139.
- Adkinson, Burton W. 1976. "Federal government's support of information activities: an Historical sketch." *Bulletin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2, 24-26.
- Artandi, Susan, 1975. "Theories of Information." In: *Essays for Ralph Shaw* / edited by N.R. Stevens. (Metuchen, NJ: Scarecrow Press, Inc): 157-169.
- Atherton, Pauline, ed. 1957.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tudy conference on classification research*: 1964 September 14-18, Elsinore, Denmark. Copenhagen, Denmark: Munksgaard 563.

- Auerbach, Isaac D. 1974. "Future development in data processing." In: *Information science: Search for Information science: 1972 August 12-20* / edited by Anthony Debons, (Champion, PA: Marcel Dekker, 1972): 215-220.
- Bar-hillel, Yehoshua. 1957. "A Logician's reaction to recent theorizing on information search system." *American documentation* 8, 103-113.
- Becker, Joseph. 1976. "The rich heritage of information science." *Bulletin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2, 9-13.
- Becker, Joseph; Mitchell, Robert E.; Shera, Jesse H.; Vose, Clement E.; Bry, Ilse. 1968.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 edited by David L. Sills, (New York: Macmillan, 1968): 301-330.
- Belkin, N.J. & Robertson, S.E. 1976. "Information Science and the Phenomenon of Information." *JASIS* 27, 197-204.
- Belkin, Nicholas J. & Robertson, Stephen E. 1976. "Information Science and the Phenomenon of Information." *JASIS* 27, 197-204.
- Belzer, Jack. 1974. Information theory as a measure. In: *Information science: Search for Identity : Proceedings of the NATO advanced study institute in information science : 1972 August 12-20* / edited by Anthony Debons (Champion PA: Marcel Dekker, 1972): 107-114.
- Berry, John. 1965. "It's wise child." *Library Journal* 90, 4724.
- Besterman, Theodore. 1936. *The beginnings of systematic bibliography*. 2nd ed. London,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Binkley, Robert C. 1936. *Manual of methods of reproducing research materials*. Ann Arbor, MI: Edwards Brothers.
- Bjorkkom, Carl. 1959. "History of the word documentation within the FID." *Revue de la Documentation* 26, 68-69.
- Borko, Harold. 1968. "Information science - What is it?" *American documentation* 19, 3-5.
- Borko, Harold; Doyle, Lauren B. 1964. "The changing horizon of information retrieval."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7, 3-8.
- Bourne, Charles P. 1961.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present state of mechanized

- information retrieval systems." *American Documentation* 12, 108-110.
- Bradford, S.C. 1953. Fifth years of documentation. In: *Documentation, 2nd ed.* / by S.C. Bradford (London, England: Corsby Lockwood, 1953): 132-143.
- Brawner, Lee B. 1993. "Insurance and Risk Management for Libraries." *Public Library Quarterly* 13, 5-16.
- Conant, James B. 1963. *Education of American Teachers*, McGraw-Hill, New York.
- Conant, Ralph W. 1978. *The Conant Report: A Study of the Education of Librarians*. Cambridge, The MIT Press.
- Cuadra, Carlos A. 1966. Introduction to the ADI annual Review. In: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 1. / edited by Carlos A. Cuadra (New York: John Wiley, 1966): 1-14.
- Cuadra, Carlos A.; Katter, Robert V. 1967. "Opening the black box of 'Relevance'." *Journal of documentation* 23, 291-303.
- Dahling, Randall L. 1962. Shannon's Information Theory: The Spread of an Idea. In: *Studies of Innovation and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1962): 117-139.
- Diener, Richard A.V. 1984. "Informational Dynamics of Journal Article Titles." *JASIS* 35, 222-227.
- Ditmas, E.M.R. 1949. "A chapter closes: Bradford, Pollard and Lancasterjon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10, 332-337.
- Donohue, Joseph C. 1966. "Librarianship and the science of information." *American Documentation* 17, 120-123.
- Ellas, Arthur W. ed. 1964. *Parameters of information science: volume 1: Proceedings of the 27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documentation institute: 1964 October 5-8*; Philadelphia, PA. Washington, DC: American Documentation Institute.
- Fairthorne, Robert A. 1967. "Morphology of information flow."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14, 710-719.
- Foskett, D.J. 1961. "Marc-Antoine Jullien: A pioneer of documentation ." *Libri* 11, 281-304.

- Fussler, Herman H. 1942. *Photographic Reproduction for Libraries*. Chicago, Il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ilbert, E.N. 1966. "Information theory after 18 years." *Science* 15, 320-326.
- Giuliano, Vincente. 1969. "The Relationship of Information Science to Librarianship :Problems and Scientific Training." *American Documentation* 20, 344-345.
- Goffman, W. 1970. "Information Science: Discipline or Disappearance?" *Aslib Proceedings* 22, 589-595.
- Gorn, Saul. 1963. "The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s: A new basic discipline." *Review SIAM* 5, 150-155.
- Harmon, G. 1971. "On the evolution of Information Science." *JASIS* 22, 235-241.
- Higgins, Margaret. 1993. "Towards a Preliminary Understanding of the Social Organization of Public Libraries." *Public Library Quarterly* 13.
- Hines, Theodore C. 1975. "Shaw and the Machine." In: *Essays for Ralph Shaw* /edited by N.R. Stevens (Metuchen, NJ: Scarecrow press, 1975): 6-14.
- Kevin, McGrarry. 1983. "Progress in Documentation." *Journal of Documentation* 39, 95-122.
- Knapke, Beth. 1979. *The Curriculum Laboratory in an Academic Library: a Simulated School Library*. Salisbury State College, (ERIC Report ED 175-473).
- Kochen, Manfred M. 1969. "Stability in the Growth of knowledge." *American Documentation* 20, 186-197.
- Leimkuhler, Ferdinand F. 1966. "Systems Analysis in University Librari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13-18.
- Lowry, W. Kenneth. 1957. "Trends in United States documentation Research." *Special Libraries* 48, 364-366.
- Mansfield, Una. 1982. "The Systems Movement: An Overview for Information Scientists." *JASIS* 33, 375-382.
- Mitchell, Caroline A. 1992. "The CLR Academic Library Management Intern Program." *Library Administration & Management* 6 :29-35.
- Mohrhardt, Foster E. 1964. "Documentation: A synthetic science." *Wilson Library Bulletin* 38, 743-749.

- Monroe, Margaret E. 1971. *Issues in Field Experience as an Element in the Library School Curriculum: a Background paper*. Virginia: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ERIC Report ED-200-231).
- Moon, Myra Jo. 1984. "A Preservation Internship at Johns Hopkins." *Conservation Administration News*, 17:5-6.
- Otten, Klaus and Debons, Anthony. 1970. "Toward a Metascience of Information: Informatology." *JASIS* 21, 89-94.
- Saunders, Wilfred L. 1974. "The Nature of Information Science." *Information Scientist* 8, 57-70.
- Schlueter, R. A. 1968. "Information Science : Some Questions and Answers."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9, 152-158.
- Shera, J.H. & Cleveland, D.B. 1977. "History of Foundations of Information Science"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Technology* 22, 249-275.
- Shera, J. H. 1972. *The Foundations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New York: Wiley.
- Shera, J. H. 1976.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Basic Elements of Library Service*. Littleton: Libraries Unlimited.
- Shera, Jesse H. 1968. "Of Librarianship,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Science."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18, 452-454; 22, 58-65.
- Vaglianos, Louis. 1972. "Information science : A house built on sand." *Library Journal* 97, 153-157.
- Vickery, B.C. 1973. "The Nature of Information Science." In: *Toward a Theory of Librarianship* edited by Conrad H. Rawski Metuchen, NJ: Scarecrow, 147-168.
- Walker, Donald E. 1981. "The Organization and Use of Information: Contributions of Information Science, Computational Linguis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JASIS* 32, 347-363.
- Wellisch, H. 1972. "From Information Science to Informetrics: A Terminolog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Librarianship* 4, 157-187.
- Wersig, G. & Neveling, U. 1975. "The Phenomena of Interest to Information Science." *Information Scientist* 9, 127-140.
- Wilson, John J. 1974. "Process of Scientific Inquiry: A Model for teaching and

Learning." *Science of Education* 58.

Yovits, M.C. 1969. "Information Science: Toward the Development of a True Scientific Discipline." *American Documentation* 20, 369-376.

ABSTRACT

**A Study o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Industry
and the Academy and on the Curriculum Development
for the Information Specialis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Tae Woo Nam*

Jun Min Jeong**

New curriculum for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is proposed on the notion of the internship and scholarly characteristics. The future of the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is expected as the discipline to synthesize the natural science and the social science. Especially the internship is strongly suggested as the post graduate program.

To draw the conclusion, the history of the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and its educational background are analyzed. The states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s of the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are explained in terms of philosophy. The functional and scholarly environments of the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are also investigated.

Secondarily it concludes that the curriculum development for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is not aimed on the skills but on the phenomena.

* Professor, Dept. of Lib. & Info. Sci., ChunNam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Lib. & Info. Sci., ChunNam National University.